

26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



20일 (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김길리와 은메달을 차지한 최민정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



20일 (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 2위해 은메달을 따낸 한국 황대현(110), 이정민(111), 이준서(112), 임종연(113), 신동민 등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 메달 7개... 세계 최강 입증

한국 쇼트트랙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에서 메달 7개(금 2·은 3·동 2)를 휩쓸었다. 김길리는 생애 첫 올림픽에서 2관왕을 달성했고, 최민정은 한국 선수 올림픽 역대 최다 메달 신기록을 작성했다.

김길리와 최민정(이상 성남시청)은 지난 21일 (한국시간) 대회 쇼트트랙 마지막 날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각각 1위(2분32초076)와 2위(2분32초450)를 기록,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는 임종연(고양시청)·황대현(강원도청)·이정민·이준서(이상 성남시청)가 출전해 6분52초239의 기록으로 네덜란드(6분51초847)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 은메달을 따냈다.

그 결과 한국 쇼트트랙은 이날에만 메달 3개를 추가하면서 이번 올림픽을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마감했다. 이는 2022 베이징 대회(금 2·은 3)와 2014 소치 대회(금 2·은 1·동 2)를 넘어선 성적이다. 최근 4번의 올림픽 중에서

는 2018 평창 대회(금 3·은 1·동 2) 다음으로 뛰어난 성과다. 더욱이 쇼트트랙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전체 메달(금 3·은 4·동 3)의 대부분을 책임졌다. 이로써 대회 전 목표로 삼았던 ‘금메달 3개 이상’을 달성했다.

김길리는 여자 3000m 계주 우승을 견인한 데 이어 개인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하며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을 차지했다. 여자 1000m 동메달을 합하면 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 최다 메달이다.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3개 이상의 메달을 딴 여자 선수가 나온 건 2014 소치 대회 심석희(금 1·은 1·동 1) 이후 12년 만이다. 한국 쇼트트랙의 전설 전이경과 간판 최민정도 첫 올림픽 무대에 선 3개의 메달을 얻진 못했다.

2004년 7월생인 김길리는 최민정의 뒤를 잇는 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차세대 예이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2018년 평창·2022년 베이징 대회 여자 1500m 챔피언인 최민정은 후배 김길리에게 간발의 차로 밀려 쇼트트랙 개인 종목 최초의 3연패는 이루지 못했으나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최민정은 이번 대회에서 동산 올림픽 메달을 7개(금 4·은 3)로 늘려 진종오(사격)와 김수영(양궁), 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이상 6개)을 밀어내고 동·하계를 통틀어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날 경기에서 김길리는 완벽한 레이스를 선보였다. 준준결승과 준결승에서 각각 1초에 배치된 그는 모두 1위로 통과하며 결승에 올랐다. 최민정도 준준결승을 2위로, 준결승을 1위로 통과하면

서 한국 선수 두 명이 결승에서 맞붙었다. 반면 경쟁 상대였던 코트니 시로(캐나다), 산드라 펠레부르·쉬자너 스윔링(이상 네덜란드) 등 이종목 강자들은 준결승 2조 경기에서 모두 넘어져 탈락하면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김길리와 최민정은 결승에서 같은 작전을 펼쳤다. 레이스 초반 후미에서 체력을 아끼면서 기회를 노렸다. 이후 최민정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결승선 7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에서 빠져나가 선수들을 추월, 커린 스토더드(미국)에 이어 2위에 안착했다.

김길리 역시 힘을 냈다. 인코스를 파고들어 3위로 올라섰다. 레이스 초반 선두로 달렸던 스토더드는 속도가 떨어졌고, 최민정과 김길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결승선 3바퀴를 남기고 최민정이 1위, 김길리가 2위로 올라섰다.

이후에는 두 선수가 경쟁을 펼쳤다. 결승선 2바퀴를 남기고 ‘탐보르길리’ 김길리가 광속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직선주목에서 최민정을 제치며 1위로 올라섰다.

김길리는 마지막 바퀴에서 최민정과 거리를 더 벌였고,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두 선수는 레이스를 마친 뒤 서로를 안아주며 격려했다.

이탈리아 쇼트트랙 전설 아리아나 폰타나는 5위에 그치며 추가 메달 도전에 실패했다.

한편 한국은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은메달)을 시작으로 10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북고·동메달),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최가은(세화여고·금메달)·쇼트트랙 남자 1000m 임종연(고양시청·동메달), 15일 쇼트트랙 남자 1500m 황대현(강원도청·은메달), 16일 쇼트트랙 여자 1000m 김길리(동메달), 19일 쇼트트랙 계주 3000m 계주(금메달)에 이어 이날까지 총 10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길리, 3000m 계주·1500m 제패... 최민정, 한국 올림픽 최다 메달 ‘新’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 추가... 이번 대회 금 2·은 3·동 2 수확 금자탑



최근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2026 바레인 장애인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SL3·SL4 종목에 조나단(서울의료원)과 복식조로 출전한 동메달을 획득한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 이승후(오른쪽 두 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장애인배드민턴 이승후, 세계선수권 복식 ‘동메달’

바레인 대회 SL3·SL4 종목서 조나단과 3위 합작 지난해 최연소 국제 발탁 후 첫 대회 ‘금’ 활약도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 이승후(전대사대부고 2년)가 ‘2026 바레인 장애인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복식 동메달을 따냈다.

이승후는 최근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대회에서 조나단(서울의료원)과 SL3·SL4 종목에 복식조로 출전해 최종 3위를 기록했다.

태국과의 16강전을 세트스코어 2-0으로 승리하며 가볍게 출발한 대한민국 이승후-조나단 조는 8강전 인도와의 경기도 2-0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4강전에서 인도의 프라모드 바그-수칸트 카담 조에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대한민국 팀을 이기고 결승에 올라간 인도팀은 최종 금메달을 획득했다.

장애인배드민턴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담양에서 광주 월봉중으로 전학을 온 이승후는 이후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과 동구스포츠클럽을 오가며 국가대표를 목표로 훈련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2024년 장애인배드민턴 신인선수로 선발됐다. 지난해에는 만15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가

대표에 선발, 첫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까지 획득하는 등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왔다. 이후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며 경험을 축적했고, 지난해 10월 열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SL3·SL4 남자복식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과 대결해 동메달을 획득한 이승후 선수가 자랑스럽다”며 “부단한 노력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된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이승후 선수가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어린 선수들 기량 발전 만족... 전술 완성도 높일 것”

KIA, 아미미오시마 1차 스프링캠프 마무리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21일을 끝으로 1차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2차 캠프를 위해 22일 오키나와로 이동했다.

일본 가고시마현 아미미오시마에서 열린 이번 스프링캠프는 첫 두 번은 4일 훈련 1일 휴식, 나머지 일정은 3일 훈련 1일 휴식으로 진행됐다. 체력 및 기술 훈련 위주로 일정을 소화한 선수단은 지난 20일 자체 흥행전까지 치르며 실전 도입을 위한 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선수단은 22일 오키나와에 도착해 23일부터 2차 캠프에 돌입하며, 24일 WBC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총 5차례의 연습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이범호 KIA 감독은 “전체적으로 큰 부상 없이 1차 캠프를 마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어린 선수들의 기량 발전이 눈에 띄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수들의 기량 점검이 끝난 만큼 2차 캠프에서는 실전을 통해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1차 캠프에서 반복 훈련했던 팀 전술의 완성도도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단에게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캠프가 끝날 때까지 컨디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시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 육성 환경 개선

광주시체육회가 지정스포츠클럽 훈련 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지정스포츠클럽 단계 구기종목 과학화 훈련용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4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연계 강화 및 평생체육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재원으로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클럽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역 내 유망 선수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뒷받침할

훈련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특히 회원 개인의 성장 과정을 관리·피드백할 장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체육회는 이번 공모로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피칭머신, 트레이닝 연습로봇, 체성분 측정기, 전력분석용 훈련장비 등 과학적 훈련용품을 구입할 예정이다. 각 클럽 전문선수반과 특화프로그램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성과를 통해 과학적 훈련용품 지원으로 엘리트선수 육성 환경을 개선하고, 성장단계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선수권 시스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